

알뜰폰의 진화... S8·G6도 살 수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제공

단말기 분실·파손보험 도입

도입 6년 만에 가입 700만 돌파

‘알뜰폰’이 도입 6년 만에 가입자 700만 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알뜰폰 업계가 최근 요금제 확대, 제휴카드 할인 등 물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진출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단점을 보완하면서 가입자 모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2월 말 69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1.3%에 달하는 수치다. 한 달에 6만명 이상 증가해오던 추세를 감안하면 지난 달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알뜰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활성화 종합 계획을 발표한 2012년부터 급격히 성장했다. 가입자 수는 2012년 말 ▲127만명 ▲2013년 248만명 ▲2014년 458만명 ▲2015년 592만명 ▲2016년 말 684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알뜰폰 업체는 39곳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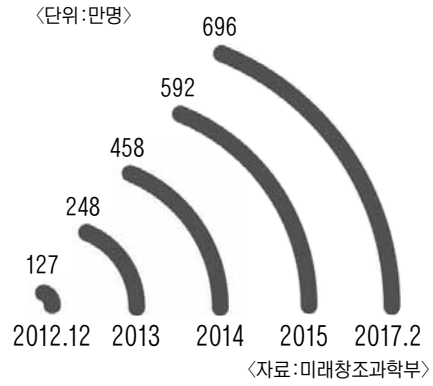


S8

G6

? 알뜰폰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망을 빌려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로 2011년 첫선을 보였다. 기존 통신사와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반값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알뜰폰 가입자



로 꼽혔던 ‘단말기 선택권이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6는 CJ헬로

비전, 에넥스텔레콤, 세종텔레콤 등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례적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한 시점에 출시했고, 알뜰폰 점유율 1위 CJ헬로비전의 알뜰폰 브랜드 헬로모바일과 2위 SK텔레콤도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직영몰을 통해 갤럭시S8 예약 판매에 나선다.

SK텔레콤이 G6 예약판매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두 업체가 나란히 프리미엄 스마트폰 예약판매를 진행하는 대상은 갤럭시S8이 처음이다. 예약판매 기간은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한 7~17일이다.

해당 두 업체는 예약가입자에게 블루투스 스피커와 PC 연결장치 ‘텍스’ 등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예약판매 사은품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게다가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저렴한 요금제에서 최대 공시지원금까지 제공할 계획으로, 다양한 경품이벤트도 검토 중이다.

한편, 알뜰폰 브랜드 SK텔레콤은 이달 말까지 삼성전자 전시장 100대를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판매대상은 2016년형 갤럭시A5, 갤럭시S7(32G), 갤럭시S7엣지(32G)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A/S는 새 제품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국민 70% “AI에 일자리 잃을까 불안”

국민 10명 중 8명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월 22~28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전국 만 15~5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혁신 기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응답자의 81.9%는 혁신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자신의 일자리가 혁신 기술로 대체될 것 같아 두렵다’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50대가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81.3%는 혁신 기술로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76.0%는 윤리·도덕적 문제 발생을 우려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려보다 기대가 큰 모습이었다. /연합뉴스

혁신 기술이 실생활에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단점이 이점보다 크다는 응답자는 27.8%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자의 92.9%는 혁신 기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35.1%에 그쳤다. 절반 이상(57.8%)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9.4%는 ‘혁신 기술의 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2.3%는 혁신 기술로 인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혁신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는 영상 콘텐츠, 로봇, 에너지 등을 많이 꼽았다.

이른 시일 내 대중화가 예상되는 기술로는 드론, 대중화가 오래 걸릴 것 같은 기술로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꼽혔다. 일반 소비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로는 자동·번역 기술이 꼽혔고, 지능형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한컴, AI 실시간 번역 메신저 ‘톡카페’ 출시

‘한글과컴퓨터’가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AI) 기반의 번역 서비스가 도입된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말랑말랑 톡카페’를 출시했다.

말랑말랑 톡카페는 외국인과의 실시간 채팅도 실시간으로 텍스트가 번역돼 소통에 문제가 없다.

우선 ‘한국어-영어’ 번역을 지원하고, 추후 ‘한국어-중국어’, ‘한국어-일본어’ 번역도 추가할 계획이다.

말랑말랑 톡카페는 휴대전화 번호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 친구로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 본인의 프로필은 지정된 사람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

또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메시지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기와 서버에서 삭제되도록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읽기 전 메시지를 회수하거나 그룹 채팅방에서 원하는 사람과 1대1로 대화하는 기능도 있다. /연합뉴스

영화 ‘인터스텔라’ 속

천문과학 살펴보기

내일 광주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7일 ‘2017 제2회 야간 천체관측 프로그램’을 연다.

이번 행사는 당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되며, ‘영화 속 숨어있는 천문학’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진다.

‘인터스텔라’, ‘마션’, ‘그래비티’ 등 과학 영화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천문과학의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이후 야의 천체관측차량인 ‘루체리움 스타카’에서 본격적인 관측이 진행된다. 고대부터 많은 관측이 이뤄졌던 산개성단과 플레이아데스 성단, 달, 목성이 대상이다. 또 계절별 별자리 설명과 가상 현실(VR) 기기를 이용한 별자리 체험도 준비돼 있다.

야간 천체관측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자 9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참여예약은 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에서 가능하다.

/박기용기자 pboxer@



무인 탐사선 카시니호가 토성을 탐사하는 모습을 그린 상상도.

“토성고리 진입하라”... 무인 탐사선 ‘카시니’ 마지막 임무

대기권 촬영 뒤 9월 파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토성 탐사선 카시니(Cassini)호가 13년 간의 탐사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았다.

5일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카시니호는 약 5개월 간의 탐사를 마치고 오는 9월 15일경 ‘장렬한 최후’를 맞게 된다.

카시니호의 임무는 토성고리 안쪽으로의 진입이다.

토성 상공의 구름 층과 반짝이는 고리

사이의 얇은 테두리를 탐사하는 것이다. NASA는 “어떤 위성도 토성의 이 부분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카시니호는 임무를 마친 뒤 토성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NASA는 “충돌에 앞서 카시니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토성의 아름다운 대기권 외곽을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시니호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경 급가속을 시도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추월해야 한다.

NASA는 카시니호가 거대한 행성과 고

리 사이의 정확한 길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면 이는 바늘에 실을 꿰는 것과 같은 정밀한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카시니호가 탐사할 지역은 토성 대기권에서 1996km 떨어진 곳이다. 토성 고리 중 D링의 가장 성긴 곳이다. 카시니호는 오는 26일부터 토성을 22회 공전하게 된다.

NASA는 카시니호가 마지막 탐사를 통해 토성의 내부 구조, 고리의 미세한 형상 등을 포착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카시니호가 연료를 소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우체국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5일 광주·전남지역 우체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했다.

한상훈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담당관을 초청해 열린 이번 교육은 ▲기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관의 역할 ▲분야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필

수 이행사항 설명 ▲개인정보 규정 준수와 침해사고 대응 등 실무 위주로 교육이 이뤄졌다.

김성철 청장은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숙박시설]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실버타운 요양원 적합부지 토지 3,613㎡ 건물 2,752.77㎡ 감정가 12억9천3백 ▶ 최저가 7억2천4백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정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정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정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건축 최적합지 감정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정가 45억 1천만 ▶ 최저가 31억5천만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동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동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기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대·임야 52,299㎡ 평당5만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